



울릉도 대풍감

그 섬에 가고 싶다, 울릉도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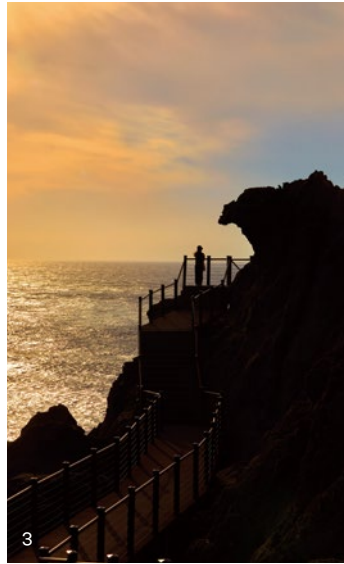
배가 섬에 가까워질수록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다.
 강릉항에서 출발해 바닷길을 달린 지 어언 3시간,
 경북 울릉군 저동항에 곧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선내가 분주해진다. 신비로운 해무 사이로 까만 화산섬이 자태를
 서서히 드러낸다. 독도의 모도(母島)이자 동해의 수호 섬, 울릉도다.



1



2



3

오른쪽으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왼쪽으로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이 눈에 들어오니 그제야 울릉도에 도착했다는 실감이 난다. 강릉·목호·후포·포항항 등에서 3~4시간 여객선을 타고 달리면 저동·도동·사동항을 통해 울릉도에 닿는다. 너울성 파도 때문에 1년 중 약 3개월가량은 결항된다고 하니 입도한 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셈이다. 어디부터 둘러봐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일주도로를 따라 울릉도를 한 바퀴 도는 코스를 추천한다.

총 44.55km로, 울릉도 전체를 도는 데 1시간 30분이면 충분하다. 도로가 좁고 터널이 많은 탓에 마주 오는 차량이 보이면 절로 속도를 줄이게 된다. 하지만 느려진 만큼 풍경은 더 크게, 더 천천히 시야에 안긴다. 울릉도는 그런 매력이 있다.

항구에서 30여 분을 달리자 한국인이 꼭 가 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으로 지정된 대풍감이 보인다. 태하항목관광노레일을 타면 걸어서 30분 거리를 6분 만에 올라갈 수 있다. 돛단배가 육지로 나가기 위해 바람을 기다리는 언덕, 대풍감(待風坎). 용암이 식으며 만들어진 주상절리 절벽이 옥빛 바다를 품었다.

대풍감 밑자락엔 바다를 따라 걸을 수 있는 태하 해안산책로가 있다. 마침 해가 누엣누엣 지고 있는 터라 일몰을 감상할 요량으로 산책로로 향했다. 노을을 받아 매서운 모습을 드러낸 매바위를 지나 바위 절벽을 따라 돌면 해풍에 짝이고 짝인 해안 절경이 펼쳐진다.

물질하는 이에게 “오늘 뭐 좀 잡았냐”고 묻자 “문어 잡으러 왔는데 허탕쳤다”며 웃는다. 강

Travel Talk

관음도

죽도, 독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울릉도 부속 섬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지만 2012년 울릉도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연도교가 놓이면서 관광이 가능해졌다. 깎새(숨새)섬이라고도 불리는데, 먹을 것이 귀하던 울릉도 개척 당시 이 새를 잡아먹을 정도로 그 수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개체 수가 크게 줄어 독도에서나 볼 수 있다. 산책로를 지나면 울릉도와 관음도를 잇는 연도교가 나타난다. 다리 중간쯤서 본성을 돌아보면 주상절리가 자태를 뽐내고, 밑으로는 푸른 파도가 부서진다. 유람선을 타면 관음도 북쪽 하부 해안 절벽에 있는 높이 14m가량의 관음쌍굴도 관찰할 수 있다.

태공의 사정은 좀 낫다. 나름 씨알 굵은 물고기를 바꾸니에 제법 채웠다. 태하마을은 마을 주변으로 큰 물고기가 자주 올라와 1년 365일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저 멀리 낚싯대를 드리운 사람, 바다 물질 중인 주민까지 정겨운 풍경이 이어진다.

- 1 2012년 연도교가 놓이며 관광이 가능해진 무인섬 관음도
- 2 대풍감 오른쪽으로 보이는 울릉도 북쪽 해안
- 3 바위 절벽이 절경을 이루는 태하 해안산책로
- 4 삼선암에는 세 선녀에 얽힌 설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4

경복바다

Flavours of Ulleung

먹고 추억하라

나리촌식당



삼나물, 엉겅퀴, 부지깽이, 명이 등 울릉도 산나물에 밥을 쓱쓱 비벼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기분이다. 울릉도의 유일한 평야 지대, 나리분지에 위치해 독특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나리분지에서만 판매하는 씨껌데기술 또는 울릉도 호박으로 빚은 호박막걸리를 꼭 곁들일 것.



📍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1길 31-115
☎ 054-791-6082

울릉국화



관음도에서 멀지 않은, 석포길 초입에 위치한 이 카페에 들어서면 작은 정자와 아기자기한 소품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울릉도산 호박을 통째로 갈아 넣은 호박라테를 마시며 반짝이는 울릉도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자니, 술도 안 마셨는데 취한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



📍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석포길 11
☎ 010-9413-5838

삼정본가식당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가 사랑하는 식당.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약초를 먹고 자란 한우, 일명 약소 요리도 맛있지만, 따개비갑국수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바다의 작은 전복이라 불리는 따개비가 듬뿍 들어가 걸썩하면서도 고소한 국물에 힘이 절로 난다.



📍 경상북도 울릉읍 울릉순환로 212-8
☎ 054-791-5870

Under the Sea

영양 가득 우리 수산물



울진

입안에서 느껴지는 최고의 식감 '골뱅이' 울진 죽변항의 골뱅이는 양식을 하지 않은 자연산으로 껍질이 얇고 씹을수록 단맛이 난다. 골뱅이를 삶아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각종 채소를 곁들인 양념무침으로 먹으면 쫄깃하고 매콤한 맛이 일품이다. 울진 골뱅이에 함유된 필수아미노산은 피부 노화 방지와 함께 강장 식품으로 각광받는 최중 식품이다.



영덕

니들이 이 맛을 알아? '대게' 영덕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대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대게의 쪽 뺨은 다리 속살을 쓱쓱 빼먹는 재미도 재미지만, 그보다 푸르스름한 내장이 붙어 있는 게딱지에 뜨거운 밥과 파, 참기름, 김치 등을 넣고 비비면 세상에 그만한 맛이 없다. 대게는 단백질은 가득한 반면, 칼로리와 지방 성분은 낮으니 살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경주시

청정 해역의 깊고 깔끔한 맛 '멸치' 동해바다 청정 해역을 회유하며 살이 오른 멸치를 자연 발효시킨 경주 지역 멸치젓은 유명하다. 특히 김포항 앞바다에서 잡은 멸치는 빛깔이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맛이 일품이라 전국적으로 찾는 사람이 많다. 10개월 이상 자연 발효한 것은 육젓,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자연 발효한 것은 액젓으로 사용된다.



구룡포

찬 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과메기' 청어를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건조시켜 구수한 맛을 내는 과메기는 구룡포에서 말려야 제맛이다. 보통은 과메기를 쪽파, 마늘, 부추, 고추 등과 함께 초고추장에 찍어 생미역에 싸서 먹지만 기름장에 찍어 김에 싸서 먹는 것도 별미다. 과메기는 고혈압과 동맥경화뿐 아니라 노화 예방에도 좋다.

울릉도

밥에서 바다가 느껴지는 '홍합밥' 울릉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홍합밥은 백문이 붙어있건이다. 홍합 따로 밥 따로 비벼주는 게 아니라, 진짜 울릉도 해안가에서 채취한 주먹만한 자연산 홍합으로 고슬고슬 지은 홍합밥에 양념장과 김 가루 듬뿍 얹어 비벼 먹는 진짜배기 홍합밥은 다른 여행지에서는 맛보기 힘든 울릉도의 별미다.



포항시

시원 담백한 동해안 물회의 원조 '포항물회' 동해안 최고의 어업 전진기지인 포항에서 과거 날마다 민선으로 밥 먹을 시간이 없는 어부들이 생선회를 채소와 고추장을 넣고 물을 부어 비벼 먹던 것이 포항물회가 됐다. 제대로 된 포항물회는 포항수협에서 직영하고 영일만 자연산 활어만 사용하는 '포항수협 송도활어회센터'에서 맛볼 수 있다.

숨 쉴 틈 필요할 때 찾는 나만의 아지트

대게의 '대' 자가 큰 '대(大)'가 아니라는 건 이제 제법 알려졌다. 대나무 다리처럼 쪽 뽕은 다리와 속살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대게의 최대 생산지 울진의 죽변항도 대나무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곳이다. 대숲 끄트머리 마을이라는 의미로 '죽빈'이라 불리던 이곳에선 해풍을 맞고 자란 단단한 대나무 숲을 마주할 수 있다. 죽변항 연안에서는 대게뿐 아니라 오징어, 콩치, 도루묵, 가자미 등 싱싱한 해산물을 철마다 만날 수 있으니 여행 중 배 꺼질 일이 없다.

가슴이 갑갑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울진 죽변항을 찾아보자. 대나무 숲에서 깊이 숨을 들이켜고 탁 트인 바다를 보며 내쉬자.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면, 응봉산 자락의 덕구온천을 추천한다. 국내 유일 자연용출 온천에서 몸도 마음도 평화의 시간을 맞이할 것이다.

여행 코스

덕구온천 죽변항 봉평해수욕장 울진왕피천공원

Travel Tip 덕구온천은 칼륨, 칼슘, 철, 탄산 등의 성분이 많이 함유된 약알칼리성 온천수다. 신경통, 근육통, 피부 질환 등에 효과가 좋다.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성류굴

수험 안내

죽변수험
054-783-7480
죽변수험위원장
054-783-7484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

죽변우성식당



물곰탕(곰치국) 맛집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해장이 필요없는 사람도 얼큰한 물곰탕 한 술 뜨면 속이 풀리는 기분이 들 것이다. 식당은 문어 볶음도 별미다. 시원시원하게 썬 문어는 질기지 않고 탱글탱글해 자꾸 손이 간다. 씹을수록 참문어 특유의 고소함이 느껴지고, 양념에 비벼 먹는 밥은 감칠맛이 살아있다.

☎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길 69
☎ 054-783-8849

회&대게&조개파는총각



울진 대게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다. 주인장이 배를 운영하면서 직접 잡은 횡감과 해산물로 손님을 맞이해 바다의 맛 그대로를 맛볼 수 있다. 속이 꽉 찬 대게는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대게를 먹고 난 후 게딱지볶음밥을 먹는 것도 잊지 말 것.

☎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길 239
☎ 054-783-0521

금문



대구뽕찜, 대구탕, 아귀찜, 연포탕 등을 맛볼 수 있다. 부드러운 속살과 쫄깃한 껍질, 주인장만의 특제 양념소스가 어우러진 대구뽕찜은 관광객뿐 아니라 현지인이 사랑하는 맛이다. 죽변항에서 차로 10분 정도 가야 하는 거리지만, 맛집으로 소문나 예약은 필수다.

☎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울진북로 1546
☎ 054-782-5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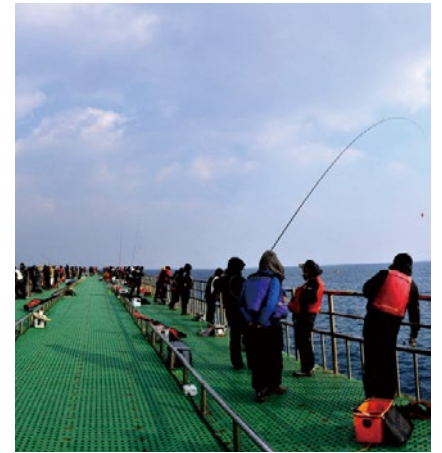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



죽변항 수산물축제

12월에 열리는 죽변항 수산물축제에서는 죽변항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행사도 개최한다.

☎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 일원
☎ 울진축제발전위원회 054-789-5485



나곡 바다낚시공원

수려한 자연과 잘 어우러진 천혜의 낚시터. 나곡 바다낚시공원. 특히 낚시교는 마치 바다 위에서 낚시를 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나곡리 33-1
☎ 054-781-8037

나곡1리 어촌체험

해수욕과 스쿠버다이빙, 미역 건조 체험 등을 위한 시설이 갖춰진 곳이다. 인근에 편의시설이 많아 가족이 함께 어촌의 문화를 체험하기에 안성맞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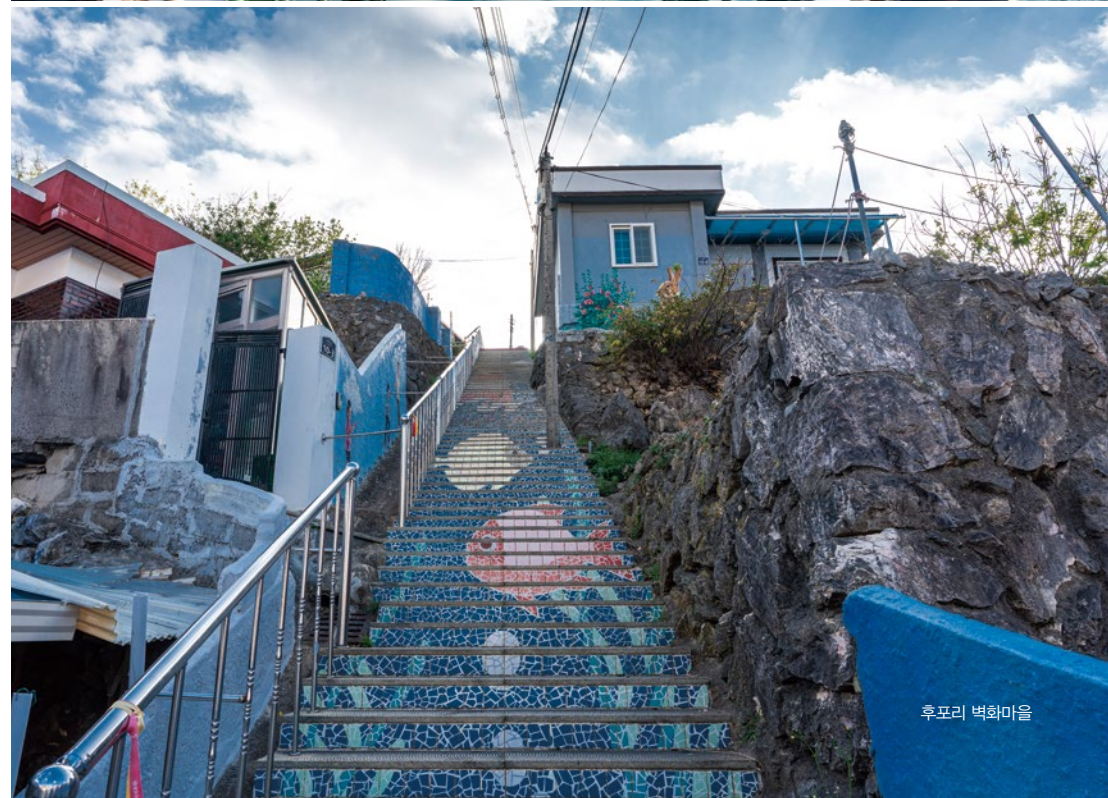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석호1길 42-33
☎ 054-783-9449



비단처럼 아름다운 바다 위에 서다

울진을 대게 먹으러 가는 곳으로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언제 봐도 반가운 친구처럼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 가득한 곳이지만, 특히 여름을 추천한다. 푸른 바다와 하늘, 소나무까지, 상쾌한 여름을 보내기에 충분한 곳이 구산해수욕장이다. 인근에 신라시대 화랑들이 소나무와 달빛을 즐기며 놀았던 월송정도 있으니 천년 역사의 유서 깊은 피서지가 아닐 수 없다.

산에서 내려다보는 바다는 어떨까. 후포등대가 있는 등기산에 오르면 후포의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유쾌함이 가득한 벽화마을과 이국적인 풍경, 다양한 포토존이 기다리는 등기산공원도 놓칠 수 없다. 등기산공원에서 출렁다리를 건너면 마치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스카이워크가 나온다. 유리 바닥 아래 펼쳐진 비단처럼 아름다운 바다. 당신은 지금 바다 위에 서 있다.



수협 안내

후포수협
054-787-1331
후포위판장
054-787-1337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후포리 대광수산



직접 잡은 홍게로 홍게 가공공장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유통 과정을 줄여 가성비 좋은 홍게를 무한 리필로 맛볼 수 있다. 버터갈릭해물 찜, 홍게짜박이, 게살로제떡볶이 등 홍게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박실길 32
☎ 054-787-0788

동심식당



과연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커다란 대접에 죽이 한가득 나온다. 그 속에는 상성한 전복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다. 죽석에서 전복을 잘라 넣는데, 쫄깃하면서도 고소하다. 전복죽 외에도 모듬회를 즐길 수 있다.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로 244-2
☎ 054-788-2557

대게앤국



대게비빔국수, 대게물회, 대게해물볶음밥, 대게버터구이 등 속이 알차고 담백한 대게 요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국물이 시원하고 깔끔한 홍게라면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다. 대게 요리가 나오기 전 서비스 음식들도 푸짐하고 맛이 훌륭하다.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로 178-3
☎ 0507-1414-7878

Editor's Ch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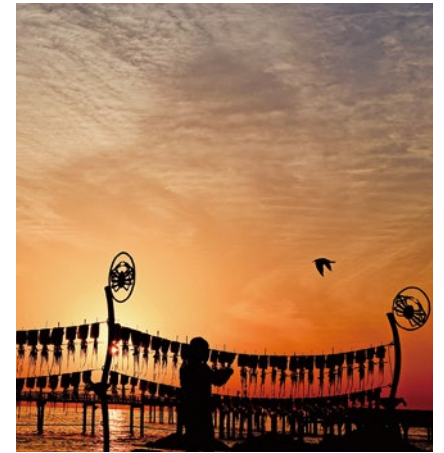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울진 대게축제

2월 열리는 울진 최대의 축제다. 후포항 한마음광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홍보전시관 운영, 세계 대게요리 시연, 대게잡이 참관 및 선상 일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개로 176
☎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 054-789-5485



거일리 어촌체험

거일리 인근에 온천이 있어 해수욕과 온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특히 물이 맑아 스쿠버 다이빙 스폿으로 유명하다. 이 밖에 갯바위 낚시, 미역 채취 체험 등을 해볼 수 있다.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울진대개로 671
☎ 거일리어촌체험마을 054-787-9912

울진요트학교

요트뿐 아니라 윈드서핑, 패들보드, 래프팅, 스노클링 등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배우고 즐길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개로 98
☎ 울진요트학교 054-788-4771



청정 바다 영덕의 맛에 빠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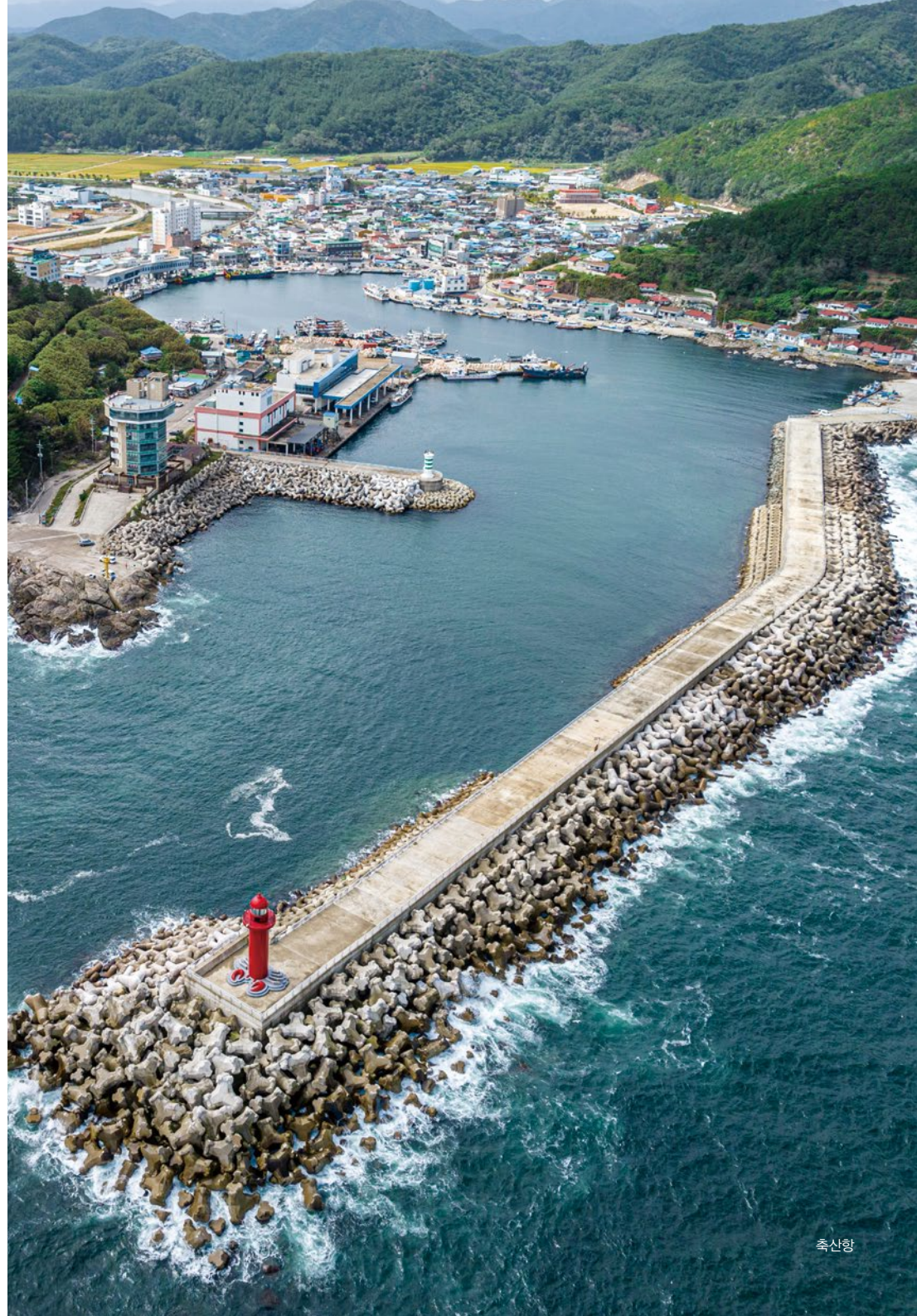
수심 200~400m의 깊은 바다. 수온은 5℃ 이하로 낮으며 염분의 변화가 없는 곳. 대게가 좋아하는 환경이다. 영덕 축산항부터 강구항 사이의 동해 바다가 그렇다. 대게가 좋아하는 새우, 게, 오징어, 문어 등 먹이도 풍부해 살이 짙은 대게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고려시대 태조 왕건이 영덕 대게를 먹고 감탄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겨울만 되면 맛 좋은 영덕 대게 찾으러 전국 팔도에서 관광객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

대게와 함께 축산항에서 즐길 수 있는 해산물은 가지미다. 갯 잡은 기름가지미(영덕에선 물가지미라고 부름)를 회나 뼈째로 썰어 각종 채소와 함께 물회로 먹으면 쫄득하고 담백한 맛이 비할 데 없다. 이것이 바로 청정 바다 영덕의 맛이다.



수협 안내

영덕북부수협
054-732-5001
영덕북부(축산)위판장
054-732-5002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

용창수산



대게의 고장 영덕 앞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를 맛볼 수 있다. 대게는 수율 80% 이상만 고집하는 정직함이 있다. 대게가 끝이 아니다. 대게장 볶음밥을 꼭 먹어보아야 하는데, 천하 일미라 할 만하다. 취향에 따라 러시아산 대게, 킹크랩, 짭조름한 홍게도 맛볼 수 있다.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길 60-3
☎ 054-733-5291

김가네식당



축산항에 있는 물가자미 전문점이다. 물가자미 정식을 주문하면 물가자미 회·구이·찜에 매운탕 까지 한 상 차려진다. 담백하고 깔끔한 맛의 물가자미회와 부드러운 물가자미구이는 가격이 의심될 만큼 맛과 양에서 흡족함을 선사한다.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길 36
☎ 054-733-8860

대게궁



매일 새벽마다 공수해온 신선한 재료로 대게 요리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영덕 강구항에서 20년 넘게 자리를 지키며 단골도 많은 현지인 맛집이다. 대게찜뿐만 아니라 부위별로 회, 버터치즈구이 등 다양한 요리가 제공된다.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길 44-1
☎ 054-734-5868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



영덕 물가자미축제

청정 바다 축산항 일원에서는 신선한 물가자미를 테마로 축제가 열린다. 흥겨운 가요제와 함께 가자미 낚시, 회 썰기, 매운 물회 먹기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일원
☎ 일자리경제과 054-730-6233



황금은어축제

영덕의 명산물이며 군어로 지정된 황금은어를 체험하는 축제다. 매년 8월 영덕읍 오십천 둔치에서 개최되며 황금은어 반두잡이, 맨손잡이 체험 등이 펼쳐진다.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영덕군민운동장 옆 오십천 둔치 일원
☎ 해양수산물 054-730-6756

차유 어촌체험

마을 포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어촌 체험 프로그램으로 고동·따개비 체험과 통발 체험 등이 있다. 고깃배 체험과 풍등 체험은 연중 진행된다.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차유길 2
☎ 차유어촌체험마을 010-9231-9881



그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바다

영덕 강구항에 정박해 있는 수많은 대게잡이 어선을 보면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최불암 선생이 연기한 대게잡이 어선 선장 캡틴 박의 일가를 그려낸 따뜻한 가족 이야기가 스쳐 지나가며 소중했던 그 시절 나의 추억까지 함께 소환된다.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대게 철이 되면 강구항엔 활기가 넘친다. 어부와 상인, 관광객들로 시끌벅적한 삶의 현상이 펼쳐진다. 170여 개의 대게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영덕대게거리에 들어가면 어느 곳 할 것 없이 싱싱한 바다의 맛을 즐길 수 있어 좋다. 만족스러운 한 끼로 미각을 깨운 후 인근에 있는 삼사해상공원을 찾으면 이번엔 또 다른 감각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은빛으로 출렁이는 검푸른 바다를 마주하는 그 황홀함! 수년 후 꺼내 보게 될 잊지 못할 한순간의 탄생이다.



수험 안내

강구수험
054-732-9112
강구위판장
054-732-9178



영덕대게거리
©영덕군청



장사상록작전 전승기념관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

동해안횃집



경상북도가 지정한 으뜸 음식점에 선정된 곳으로 싱싱한 회와 대게 등을 맛볼 수 있다. 정식을 주문하면 초밥, 고등어회, 매운탕, 새우튀김, 생선조림 등 다양한 곁들이 반찬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맛있다. 특히 전복, 해삼, 멥게와 회가 진득 들어간 물회는 꼭 맛보길 추천한다.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동해대로 4198-5
☎ 0507-1391-4801

나비산 기사식당



미주구리는 일본에서 유래된 말로 물가자미를 일컫는데, 영덕군 강구 지역에서는 미주구리로 통한다. 강구항에 자리한 생선찌개 전문점 나비산 기사식당에서는 미주구리찌개를 제대로 맛볼 수 있다. 약간의 점성이 있는 국물은 매콤하고 칼칼한데, 흰쌀밥에 비벼 먹으면 그야말로 별미 중 별미다.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산로 10
☎ 054-733-2552

청송식당



새콤한 초장과 먹는 미주구리회 전문점이다. 1976년에 문을 열어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곳이다. 초장에 무쳐 먹는 미주구리라 하는 자연산 물가자미회와 고추장에 쓱쓱 비벼 먹는 매콤하면 서도 달콤한 물회가 주메뉴다. 시원한 맛이 일품인 물곰탕도 해장하기에 아주 좋다.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대계4길 9-7
☎ 054-733-4155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



영덕대게축제

천년의 맛, 영덕대게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축제로 매년 4월 초, 대게의 고향 영덕군 전역에서 열린다. 대게 낚시, 대게 감밥말이, 대게 껍데기 볶기 등 독특한 즐거움이 있다.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185-1 삼사해상공원
☎ 관광과 054-730-6393



청소년 해양 환경체험

청소년에게 해양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미래 해양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역량을 개발하고자 해양 안전훈련, 극지 연구, 해양 탐사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영덕대계로 911-44
☎ 국립청소년해양센터 054-730-8500

고래볼 국민야영장

17만5,000㎡의 숲속에 마련된 고래볼 국민야영장은 나무 데크로 조성된 일반 캠핑 사이트 110면과 오토캠핑장 13면, 카라반 25대로 구성되어 있다.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캠핑의 낭만을 즐길 수 있다.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볼로 12
☎ 고래볼 국민야영장 054-734-6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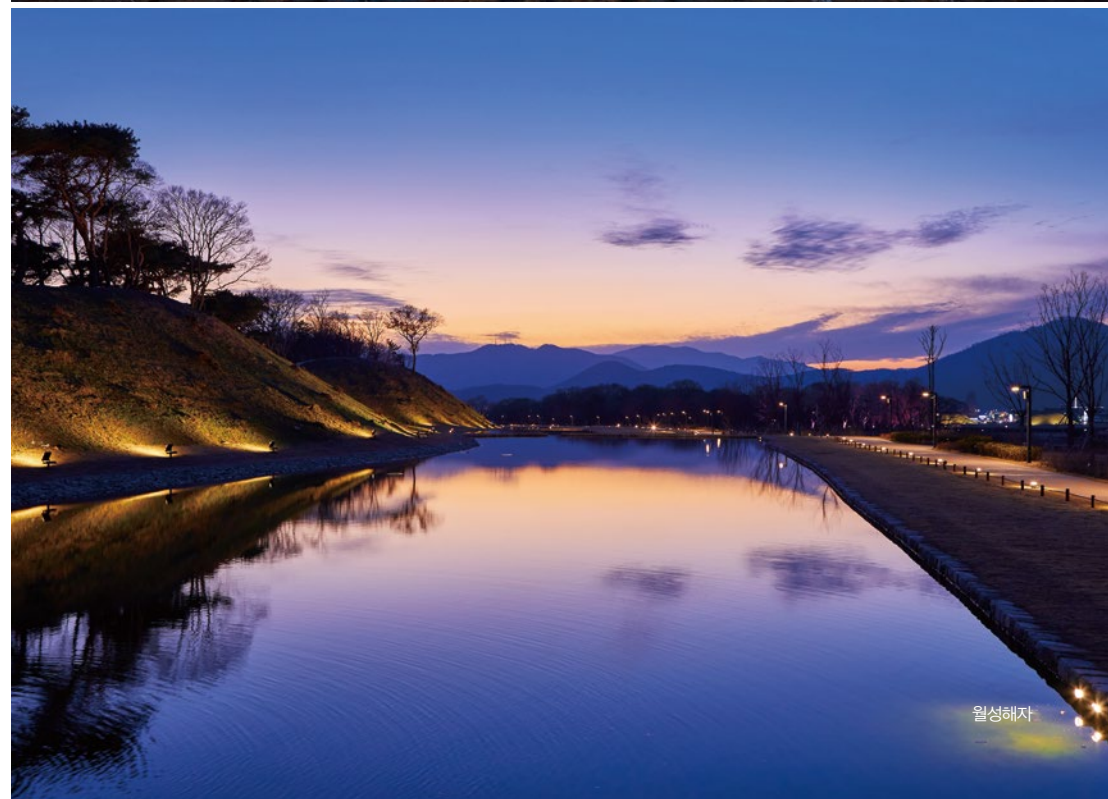
그윽한 달빛 아래 걷는 신라의 거리

누군가에게 낙엽만 굴러가도 웃음이 터지던 시절 수학여행 온 기억으로,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추억이 아로새겨진 낭만의 장소로 기억될 경주. 경주는 한두 번 여행하기에는 아깝고도 아쉬운 보물 같은 도시다. 발길 닿는 곳마다 신라 천년의 역사가 머무니 경주를 즐기는 법도 다양각색. 그윽한 달빛이 어스름한 거리를 비추는 시간, 조명으로 둘러싸인 유적지 주변을 산책해보자. 드넓은 평지에 거대한 고분이 모여 있는 대릉원과 별처럼 빛나는 첨성대, 경주 김씨의 시조 탄생 설화를 간직한 신비의 숲 계림, 강 위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월정교,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였던 동궁과 월지를 둘러보면서 신라의 달밤을 걸어보자. 타임 슬립을 한 듯 환상적인 분위기에 흠뻑 젖어줄 것이다.



수험 안내

경주시수험
054-744-3736
감포위판장
054-744-3022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지중해횃집



경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행지인
보문관광단지 인근에서 싱싱한 회를 맛보고
싶다면, 주저 없이 추천할 수 있는 곳이다.
포항에서 그날 새벽에 잡은 해산물을 공수해
싱싱하고 쫄깃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오렌지, 키위
등 과일을 듬뿍 넣어 만든 새콤한 육수와 싱싱한
회가 만난 물회도 인기 메뉴다.

☞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325
☎ 054-773-9933

감포 철없는 대게



상호처럼 사계절 싱싱한 대게를 즐길 수 있다.
대게나 킹크랩을 주문하면 갯 튀겨 바삭한
새우튀김과 생선가스가 밑반찬과 함께 제공된다.
오동통한 살에서 단맛이 느껴지는 대게를 다
먹고 난 뒤 게 등딱지 볶음밥까지 먹으면
두고두고 생각날 완벽한 한 끼가 완성된다.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1768
☎ 054-746-8253

하동갯벌낙지



부들부들한 달갈짬과 나박김치, 고추찜,
가지나물 등 기본 반찬이 정갈하다.
100% 국내산 낙지만 사용해 신선하고
아들아들하다. 산낙지전골, 산낙지볶음,
산낙지탕탕이 등 다양한 낙지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식당이다.

☞ 경상북도 경주시 보불로 164-6
☎ 054-746-8253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감포해상낙시공원

감포항 방파제에서 해상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은 낚시꾼들에겐 최적의 장소다. 바닷가
산책도 하고 낚시도 할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다.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2길 93
☎ 경주터미널관광안내소 054-772-9289



경주 야경 투어

해가 지고 난 후 경주는 또 새롭다. 버스를
타고 아름다운 경주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시티투어 코스다. 동궁과 월지, 첨성대, 계림,
교촌마을, 월정교의 밤을 감상할 수 있다.

☞ 탑승 - 경상북도 경주시 강변로 184
경주시외버스터미널
☎ 경주 시티투어 054-743-6001

연동 어촌체험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하고 주변에 다양한
볼거리가 많아 관광객으로 늘 북적이는 곳이다.
여름철에는 스노클링 체험, 대나무 전통낚시를
해볼 수 있다.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연동길 38-1
☎ 연동어촌체험마을 054-776-0129



차가운 바닷바람 견뎌낸 과메기의 고장

맛 좀 안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절은 역시 겨울이다. 차가운 수온에 육질이 단단해진 방어와 진한 바다 향을 느낄 수 있는 굴, 단백질 덩어리 삼치 등 겨울 바다가 만들어낸 맛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미식가라면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과메기다. 해풍에 청어나 콩치 말린 것을 과메기라고 하는데, 겨울철 구룡포항에 들어서면 덕장에 줄줄이 걸린 과메기를 만날 수 있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꽤 지친 몸이 텐데 담백하고 쫄득한 맛이 비할 데 없다.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맛을 경험했다면, 구룡포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호미곶에서 일출을 감상하자. 수평선 위로 거대한 해가 떠오르는 장관은 어떤 여행지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환상적인 아침을 선사해줄 것이다.



수협 안내

- 구룡포수협 054-276-2807~8
- 수산물판매장 054-276-1111
- 활어위판장 054-276-2830



호미곶
©포항시청



구룡포 낚시터
©포항시청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

대중물회



구룡포수협 소속 채낚기어선이 어획한 동해안 오징어를 이용한 물회가 주메뉴다. 오징어물회는 양념된 육수를 부어 먹는 방식의 물회가 아닌 예전부터 먹어오던 양념장을 비벼 기호에 맞춰 조절하면서 먹는 방식이다. 오징어전복물회 역시 일품이다.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61-2
☎ 054-276-4235

해녀전복



구룡포에서 직접 채취한 자연산 전복을 사용해 전복 본연의 탱탱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음식이 깔끔하며 반찬도 자연산 미역과 톳, 소라, 군소 등 직접 바다에서 채취한 것으로 만들어 내놓는다. 무엇보다 믿을 수 있고 신선도가 좋아 건강해지는 맛이다. 위치가 골목에 있어 지나치기 쉽다.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317-6
☎ 054-276-2338

까꾸네모리국수



나이가 지긋한 주인장이 50년 넘게 장사를 이어오고 있다. 커다란 양은 냄비에 담긴 칼국수 위로 새빨간 고춧가루를 듬뿍 뿌려 나오는 모리국수가 대표 메뉴이자 단일 메뉴다. 얼큰한 풍미가 진동하는 국물 속에는 아귀, 아귀간, 홍합, 미더덕, 콩나물 등 재료가 넉넉하게 들어 있어 푸짐하다.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39-13
☎ 054-276-2298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전국 일출 행사 중 유일한 국가 지정 행사로 호미곶해맞이광장에서 새해 1월 1일 열리는 해맞이 축제다. 전국 각지에서 20만 인파가 운집하며 전야 행사, 자정 행사 등이 열린다.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호미곶해맞이광장
☎ 컨벤션관광산업과 054-270-2243

구룡포 과메기축제

구룡포 최고의 특산물 과메기를 테마로 11월 중순 과메기문화거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흥과 멋, 그리고 맛이 함께 어우러진 먹거리 장터와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다.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34
☎ 수산정책과 054-270-2753



구룡포 대게축제

구룡포 대게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9년부터 개최하는 축제다. 대게 낚시, 대게 퓨전요리 이벤트, 대게 깜빡 경매 등이 진행된다.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34 아라광장
☎ 수산정책과 054-270-2753



철의 도시 포항을 마주하다

포항이 이렇게나 뜨거웠구나. 포항을 여행지로 떠올리기보다는 철강기업 포스코나 해병대 훈련소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던 포항이 달라졌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과 <갯마을 차차차> 속 동화 같은 어촌 풍경을 담고 싶어 포항을 찾는 이가 많아졌다.

여기에 2021년 개장한 스페이스워크도 한몫한다. 높이 27m에 길이 333m의 트랙으로 이루어졌는데, 롤러코스터 위를 걸어 다니는 것처럼 아찔하고 짜릿하다. 무한하게 이어지는 '루프'를 모티브로 했다고 한다. 스페이스워크는 포스코에서 제작해 포항시에 기증한 공공 조형물이다. 내친김에 10km 정도 떨어진 포스코 역사박물관을 견학하는 것도 추천한다. 세계적 기업이 된 포스코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다.



수험 안내

- 포항수험 054-247-0856
- 송도활어회센터 054-256-2770
- 송도활어위판장 054-249-4122
- 동해구기선저인망수험 054-231-3314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

남일초밥



포항에서 잘 알려진 초밥집이다. 포항 및 구룡포 등지에서 나오는 신선한 해산물로 초밥과 회를 만든다. 초밥은 소박한 모양이나 쌀알이 잘 뭉쳐 있고 회가 쫄깃하고 단단한 맛이다. 항상 손님들로 붐비는 이유로 충분하다. 회나 대구탕도 먹어볼 만하다.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70
☎ 054-244-9062

대궁회타운



대궁호로 직접 조업해 공수하는 횡감은 신선도와 맛에서 단연 으뜸이다. 이곳 물회는 양념장을 비벼 기호에 맞게 물의 양을 조절해서 먹는다. 대게, 돌문어도 좋은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기본 반찬을 포함한 모든 음식이 푸짐하고 정갈하며 맛나다. 가까운 곳에 해맞이광장 등 볼거리도 많다.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호미로 1866-13
☎ 054-284-9462

포항수협 송도활어회센터



포항수협에서 직영하는 회 식당으로 포항수협 관내 어업인들이 동해안 청정 해역에서 직접 어획한 자연산 재료를 사용한다. 자연산 회는 포항수협에서 보증한다. 1층에서 횡감이나 재료를 선택하면 회를 떠서 2층 식당으로 가져다 주거나 식당에 요리를 주문할 수 있다.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308
☎ 054-256-2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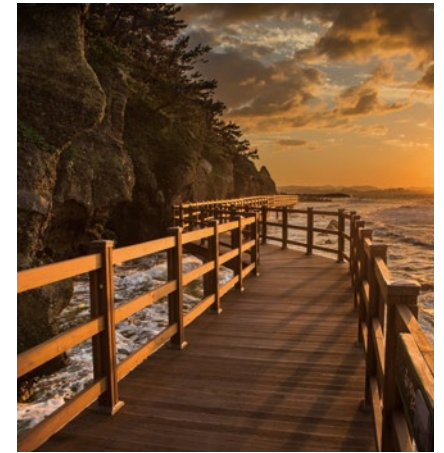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



영일만 검은 돌장어축제

영일만 지역의 검은 돌 사이에서 자란다고 해서 '검은 돌장어'라고 불린다. 축제에서는 자연산 검은 돌장어를 시식할 수 있고 이 외에도 후릿그물 체험, 명주조개 잡기 체험을 할 수 있다.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685-1 영일대해수욕장
☎ 수산정책과 054-270-2753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한반도 최동단 지역으로 해안선 58km를 연결하는 트레킹 로드다. 해맞이와 석양이 아름다운 천혜의 해안을 따라 기암절벽과 찰랑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무념무상으로 한나절 걸을 수 있다.

📍 코스 2. 선바우길
힌디기 - 하선대 - 흥환간이해수욕장(6.5km, 1시간 30분)
☎ 포항시관광안내소 054-270-5977

수산물 페스티벌

동해안 최대 수산물 생산도시 포항의 청정 수산물 축제다. 수산물을 다양한 형태로 맛볼 수 있고 짬뽕 수산물 경매, 물고기 잡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310 송도활어위판장
☎ 수산정책과 054-270-2753



비할 데 없는 천하제일의 비경, 울릉도

달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여객선뿐이라 바닷길이 허락해줄 때만 찾아갈 수 있는 특별한 섬이다. 울릉도의 바다는 만만치 않다. 깨끗하고 상쾌한 빛을 띠다가도 매서운 파도와 함께 검푸른 빛으로 돌변한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에메랄드빛 바다에 혼이 쏙 빠진다.

저동항은 울릉도 오징어의 집산지로, 제철인 5월이면 시골벽적 활기가 넘친다. 선주와 경매인, 상인, 바쁜 손놀림으로 오징어를 손질하는 사람들까지 삶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불빛을 쫓는 오징어의 특성 때문에 조업은 밤에 이루어지는데, 동해 바다를 수놓은 어선의 불빛이 만드는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북적이는 저동항과 정반대의 분위기를 즐기려면 현포항으로 가자. 나무덱을 따라 현포전망대에 오르면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수험 안내

울릉군수협
054-791-8003, 2904
저동위판장
054-791-8006





새바다식당



매일 아침 울릉도 앞바다에서 직접 잡아 올린 제철 생선과 활오징어 등 주로 자연산 재료를 사용해 울릉도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특히 생선회나 물회는 절대로 양식 생선을 사용하지 않아 쫄깃함과 싱싱함이 입안을 가득 채운다. 매운탕은 자연산 잡어를 사용해 칼칼하고 맛이 깊다.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봉래1길 28
☎ 054-791-7912

99식당



오징어내장탕, 따개비밥 등 울릉도 특산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따개비밥은 바닷가 암초에 붙어 사는 따개비로 육수를 내어 밥에 넣고 볶은 후 김 가루를 얹은 찰밥이다. 양념장을 곁들여 비벼 먹으면 입안에 바다가 가득하다.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89
☎ 054-791-2287

올레식당



독도새우, 전복, 한약재, 토종닭, 문어까지 푸짐하게 들어간 통해신탕 맛집이다. 음식에 사용하는 재료들을 직접 키우고 손질해 신선하고 육수에도 공을 들여 보약을 먹는 듯한 느낌이다. 아들이들한 오징어와 채소가 듬뿍 들어간 오삼불고기도 이 집의 또 다른 인기 메뉴다.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4길 93
☎ 0507-1369-8813



울릉도 오징어축제

오징어를 잡아보고, 건조 과정을 체험하면서 오징어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행사다. 8월 초 저동항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오징어잡이배의 낭만적인 불빛을 함께 즐길 수 있다.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일대
☎ 도동관광안내소 054-790-6454,
저동관광안내소 054-791-6629

울릉해변가요제

한여름 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매년 8월 초 울릉군 수협 저동위판장 부근에서 열린다. 불꽃놀이를 비롯해 노래 경연, 향토 먹거리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212-16
저동위판장 일대
☎ 도동관광안내소 054-790-6454,
저동관광안내소 054-791-6629



행남 해안산책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하는 가벼운 트레킹 코스로 울릉도를 방문하면 꼭 다녀와야 하는 필수 코스로 손꼽힌다. 40m의 회전식 계단이 최고의 전망을 선사한다.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행남길 291-1 도동1리 행남마을
☎ 도동관광안내소 054-790-6454

